

여수시, 12조 규모 '인구정책 5개년 기본계획' 마련

주거안정화·경제안정화 등 삶의 질 향상 인구정책 목표 정주기반 강화 등 4대 전략 13개 과제·148개 사업 선정

여수시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인구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기 부시장을 주제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살고 싶은 행복도시 여수'를 비전으로 △주거안정화 △경제안정화 △



여수시가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인구정책 5개년(2024~2028)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과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12조원 규모의 인구정책 청사진을 마련했다.

여수시 제공

교육안정화 △생활안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인구정책의 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4대 추진 전략을 세워 '정주

기반 강화', '생활밀착형 환경조성' 등 13개 중점 추진과제와 148개 세부사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신규사업은 '여수

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등 42개 사업이다.

총 소요 예산은 11조5496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1조5527억 원(13%), 도비 5372억 원(5%), 시비 2조6861억 원(23%), 민자 등 기타 6조7735억 원(59%)이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과 가정 양립, 양육·주거부담 완화에 발맞춰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도로·교통 분야 정책을 발굴해 인근 지자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산단 출퇴근 근로자를 위한 도로망 확충 △유동 인구 및 은퇴자 흡수를

위한 택지개발(소계·죽림·울촌지구) △노후 산단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전국적으로 지방도시의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고, 여수시도 고령인구비중이 증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며 "여수에 적합한 인구정책 마련으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과 주택, 도로, 일자리 등 핵심과제 부시장이 참여하는 인구감소대응 전담(TF)팀을 8월 중 발족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남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여수시가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관광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4년 전남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3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전남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은 보편적 관광복지 실현을 위해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6만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32만원(동반자 1인 포함) 등 여행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추가 모집 인원은 저소득층 255명, 장애인·고령자 124명으로 총 379명이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주민등록되어있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한부모가족이거나 지체·시각·발달·정각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이다.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시된 8개 여행상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누리집(www.yeosu.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관광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의 관광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번 사업에 대상자들에게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운영 중인 어린이 물놀이장과 바다분수 누적 이용객이 1만 명을 돌파하면서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여수시 제공

지역특화형 섬 체험활동 '섬 배울 학교' 개강

개도·사도 등 5개 섬 현장답사

여수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섬 체험활동인 2024년 하반기 '섬 배울 학교'를 운영한다.

'섬 배울 학교'는 연륙교 없이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여수의 작은 섬마다 가진 고유문화와 역사 등을 배우는 현장답사 프로그램으로, 이번 하반기(9~10월)에는 △개도 △대두라도 △사도 △형간도 △여자도 등 5개 섬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6년과 2023년 '섬 여행 전문가(심화)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가 10명이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하며, 답사지별 섬 특성을 반영한 현장 체험활동으로 참가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휴

식과 지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19일부터 29일까지며, 여수시 OK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125명(회당 25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둔 지금, 섬이 가진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도 신규 프로그램인 '섬 웰니스 아카데미' 등 섬 체험활동을 확대 운영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가 올해 상반기(4월 17일~5월 25일)에 5회 진행한 '섬 배울 학교'에 108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 속에 마무리됐다.

여수=이경기 기자

유·초·중·고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여수시가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 286곳의 경계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번 방침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30m 이내로 확대한 것으로,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절대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금연구역'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곳곳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해 금연 구역 확대 및 시설에 대한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금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담배 연기 없는 여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도심 속 어린이 물놀이장 인기... 누적 이용객 1만여명

하루 평균 500여 명 방문

여수시가 운영 중인 어린이 물놀이장과 바다분수 누적 이용객이 1만 명을 돌파하면서 시민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개장한 물놀이장에 12일 기준 7733명의 어린이와 4163명의 보호자가 방문해 하루 평균 이용자 수 약 500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특히 최근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더불어 어방학을 맞이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의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59개소에서 2000여 명이 신청했으며, 여수시는 단체 신청을 배분해 이용토록 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물놀이장 이용에 힘쓰고 있다.

바다분수는 이용객이 폭증함에 따라 운영 시간을 2시간 연장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45분 가동, 15분 휴식으

로 운영된다.

시 관계자는 "연일 지속된 불볕더위로 지친 아이들이 울며 쉬고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물놀이장은 △성산공원 △여문공원 등 2개소에, 바다분수는 △이순신공원 △동동공원 △해변문화공원 △죽림근린공원 △미평공원 △꽃가람공원 등 6개소에 조성돼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문화 예술 분야 보조금 제도' 일부 변경

내년 7월 여수문화재단 설립맞춰 지정 사업 통합모집→ 분리모집

여수시가 역량 있는 예술인과 단체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도 문화·예술 분야 보조사업자 통합모집에서 분리모집 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내년 7월에 예정된 여수문화재단 설립에 맞춰 이관을 준비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시책과 연계된 창작활동을 중점적으

로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정사업(△단체법정운영비 및 정기사업 △제향 △전통민속놀이 △타시군 교류행사 △전국단위 경연대회 참가 및 개최)'과 '공모사업(지정 외 모든 사업)'을 일괄적으로 모집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각 모집하게 됐다.

변경된 모집 방식에 맞춰 심사기준과 절차도 별도로 마련했다. '지정사업'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사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나, '공모사업'은 외부

전문가 심사단계가 추가되어 보조금사업 선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문서24, 전자우편을 통해 '지정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사업'은 2025년 1월 이후 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모집 방식을 변경한 것은 신진 예술가에게 지원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가 마주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조치"라고 설명하며 "역량 있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